

文 “든든한 대통령” 安 “새시대 열린다” 메시지 담아

■ 대선 후보 선거공보물 보니

洪 “당당한 대통령”으로 강함 키워드

劉 “능력있는 대통령”...사표방지 구호

沈 “노동이 당당한 나라” 친노동정부

각 당 대선후보들이 유권자의 안방에 전달할 선거공보물 제작을 속속 완료하고 있다.

인쇄를 마친 선거공보물이 이번 주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면, 선거권위는 오는 25일까지 공보물을 발송한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벽보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을 전면 배치했다. 이어 광화문 촛불집회 때 사용된 ‘#이

게 나라내’라는 문구가 새겨진 ‘촛불 종이컵’ 사진을 크게 실었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대권에 도전하는 문 후보의 전략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는 “민심이 천심이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이었다”는 글귀를 종이컵 사진에 적어 넣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벽보에 실린 대로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표지로 삼았다.

홍 후보의 공보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강함’이다. 자신을 가리킨 ‘스트롱맨’ 표현처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공보물 곳곳에 배치했다. 그는 ‘무수저 출신’에서 ‘모래시계 검사’로, 이후 4선 국회의원과 경상남도지사를 지낸 자신이 “가난과, 부패권력과, 기득권과, 좌파와 맞서 이겨냈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화제가 됐던 선

거 벽보를 공보물 첫 면에 실었다. 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바탕에 두 팔을 치켜들고 ‘국민의당 3안철수’라는 어깨띠를 두른 모습이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역시 초록색 글자로 스토리텔링 방식에 따라 안 후보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자”며 “근본적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일각에서 안 후보의 안보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듯 ‘튼튼한 안보가 경제의 시작’이라는 구호도 눈에 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강조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수의 새희망’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진실한 대통령, 용감한 대통령’ 등을 자신의 지향 가치로 제시했다. 특히 유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자신을 향한 ‘사표(死票) 심리’를 의식한 듯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는 구호를 공보물 마지막 장에 넣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촛불 시민혁명 의 완성 =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며 “최초의 친노동정부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공보물에 담았다. 심 후보는 “촛불이 이론 탄핵과 대선,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데 머물 수 없다”며 ‘어떤 정권 교체나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살릴 대통령’이라는 구호, ‘대한민국 정체성과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곰돌이 캐릭터’를 넣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연합뉴스

안전 D등급 저수지 112곳 도, 예산 부족 보수 못해

예산 부족으로 전남도에 안전성이 미흡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이 지연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본격 영농철과 우수기를 앞두고 지난 3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국가 안전대진단 결과 3206곳 중 7.6%인 245곳이 미흡 수준인 D등급으로 나타났다.

우수하거나 양호한 곳은 각각 237곳(7.4%), 1040곳(32.4%), 보통인 곳은 1672곳(52.2%)였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미흡 수준인 D등급 판정을 받은 245곳 중 현재 133곳에 대해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112곳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 안전 점검 후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은 제방 하류부 누수, 물받이 및 취수시설 노후 상태를 확인하는 등 예측되지 않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50여일간 실시했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용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확보에 노력해 안전과 영농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공보물 누가 더 잘 만들었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유권자의 안방에 전달할 선거공보물 제작을 속속 완료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기호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기호4번 바른정당 유승민, 기호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보물. /연합뉴스

한신협 대선 후보 인터뷰 **바른정당 유승민**

광주 에너지·전남 우주항공도시 육성

5·18정신, 촛불정신으로 이어져
안후보와 생각 달라 단일화 없어
후보사퇴 안해... 대선 완주할 것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광주는 에너지선도도시로 육성하고 전남을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로 지정하고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공동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5·18 진상 규명 및 5·18 헌법 전문 반영을 묻는 질문에 대해 “5·18운동 이후에 호남지역 정신이 민주와 인본이 됐고, 결국 7년 후 6·10 항쟁과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다. 그게 지금의 촛불정신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5·18에 대해서 국민 마음이 민주화운동을 대하는 정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역사에서 3:1운동을 얘기하고 4·19를 얘기하듯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 보수 연대에 대해 묻자 “대선과 관계없이 자유한국당과 같이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저런 당은 진정한 보수당이 아니다. 그런 한국당과 다시 합친다는 것은 창당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단일화를 하든 연대를 하려면 서로 당선이 대통령이 돼도 좋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민의당과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안철수 이런 분들과는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대선은 완주한다. 사퇴는 절대 없다”고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당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후보 사퇴론과 관련 “선거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열심히 잘 치르고 있다. 극소수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지지도가 낮으면 어느 당이든 다 시끄럽다. 저는 이 정도 시끄러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경제를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후보마다 일지리를 얼마 만들고 4차 산업혁명 등 그런 소리 하는데 다음 대통령은 되자마자 IMF 위기가 안 오도록 만드는 게 가장 급하다. 부실한 기업, 한계 가구, 기계부채 문제 등이 부동산과 직결돼 있는데 급격한 붕괴가 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방편론을 제시했다.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권의 분리 문제와 관련 “가능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나 국민적 평가에 비추어 경찰조직에 수사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제3의 조직으로 수사청을 별도로 설치, 경찰과 검찰의 이원적 조직에서 경찰청·수사청·검찰청으로 3원화할 것이다. 경찰은 행정경찰(순찰·경비·방범 등)과 사법경찰(수사)로, 검찰은 수사경찰과 송무경찰(기소·공소유지)로 분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0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바른정당 유승민, 첫 광주 유세 “대한민국의 미래 선택해 달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20일 아련의 뒷밭인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호남 방문이다.

유 후보는 이날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집중 유세를 통해 “호남에서 별로 인기 없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광주시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제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자격과 능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싫어서 문재인,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를 찍는 선거를 하면 또 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라며 “지역감정을 조정하는 구태 정치인들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 달라. 여러분이 찍으면, 찍은 사람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cki@

무등산 자락 누정에서 옛 선비의 멋과 풍류를 만나는 기회!
토요일엔 누구나 풍류처사가 된다

풍류남도인들이

누가 풍류처사? who

2017. 4.~10.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광주담양지역누정·가사문화권

미션 수행 시 상품도 드립니다

선비풍류 미션 나들이

한벽당
한벽추구학당
(매주 토요일 2시)
한벽책꽂(에서)

식영정
식영인문학당
(1·3·5주 토요일 3시)
식영풍류도원

소쇄원
생소한 소쇄원 48명

취가정
나는김덕령이다
취가화전놀이

한국가사문학관
풍류달빛공연
(매월 보름 가까운 토요일 7시)

주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담양군, 광주광역시북구 GWANGJU CITY 북구, 주관 광주문화재단

문의 062-232-2155